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 | | | | | | |
|--------|------|------------------|------|--------------|----|-----------|
|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이사야서 40:1-5.9-11 | 제2독서 | 베드로2서 3:8-14 | 복음 | 마르코 1:1-8 |
|--------|------|------------------|------|--------------|----|-----------|

◎말씀 < 인권존중과 신앙생활 >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가 정한 ‘인권 주일’ 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출발한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제2차 총회에서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문’을 선포하고, 전 세계가 실천하도록 선포한 날을 ‘인권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전문), 즉 인권을 법으로 제정하고, “이성과 양심”에 따라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제1조)고 규정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며, 세계인권선언문의 권고가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도록 사회교리로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들이 적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신자들은 각자 소속된 사회 안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생활로 수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비신자도 형제자매로 느낄 수 있는 인류애 확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5천만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세계대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유엔총회가 인권선언문으로 인류애에 호소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바라십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으로 쉽게 죄로 기울고 비참한 상황에서 허덕입니다. 하느님께서 죄로 나약해진 인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전례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소리를 높여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앞당기라고 권유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에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인류애를 확산하려는 노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높은 언덕과 깊은 골짜기로 상징되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려고 결심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이 호소하듯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모든 신자가 파멸로 이끄는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건전한 이성과 올바른 양심을 회복하여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 일 자 | 전 려 력 | 미사시간 | 우리들 정성(지난주) | |
|------------|--------------------------|--------|-------------|-------------------|
| 12월 8일(화)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 | 교 무 금 | \$ 1,200.00 |
| | | | 주일헌금 | \$ 623.00 |
| 12월 9일(수) | 대림 제2주간 수요일 | | 미사예물 | \$ 380.00 |
| | | | 성소후원 | \$ 112.00 |
| 12월 10일(목) | 대림 제2주간 목요일 | | 사회복지 | \$ 32.00 |
| | | | 성물방 | \$ 70.00 |
| 12월 11일(금) | 대림 제2주간 금요일 | | 기타수입 | \$ 1,100.00 |
| | | | ACA Rebates | \$ 0.00 |
| 12월 12일(토) |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 | 합 계 | \$ 3,517.00 |
| 12월 13일(일) | 대림 제3주일 | 오전 10시 | 미사참례자 | 학생: 0명 성인: 58명 |

교무금 봉헌자 고원석.김평옥(11-12월) 김기상(10-12월) 성영진(11월) 김용문(12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강생(降生)의 신비

천주교의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기본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주존재(天主存在)’, ‘삼위일체(三位一體)’, ‘강생구속(降生救贖)’, ‘상선벌악(賞善罰惡)’을 천주교의 4대 교리라고 하지요. 그중에서 오늘은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요한복음의 표현(‘말씀이 사람이 되셨다.’(요한 1,14))에 따라,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인간 본성을 취하신 일을 ‘강생(降生)’이라고 부른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61항』) 이를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는 뜻으로 ‘육화(肉化)’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강생’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넘어서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천 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뛰어난 언변과 지혜를 가진 특별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은 참하느님 이시며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굳이 유한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생애는 ‘속량(贖良)’의 신비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을 희망하게 하신 것이지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인간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 사랑의 계획은 예수님의 ‘강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17)

의인들만의 구원을 바라셨다면 하느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유한한 삶을 체험하실 필요도, 죄 없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지만 그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하느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느님만이 지니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될 때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취하여 오신 하느님의 깊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욱.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타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신상철.사무엘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 구분 | 지향 | 봉헌자 | 구분 | 지향 | 봉헌자 |
|----|--------------------|---------|----|----------------------|---------------|
| 생 |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 곽유경.데레사 | 생 | 장영란.젬마 영육건강 | 임정남.실비아 |
| 생 | 장영란.젬마 영육건강 | 이나숙.데레사 | 생 | 이호순.수산나 건강회복 | 류가브리엘라 |
| 생 | 박수옥.글라라 영육건강 | 가족 | 생 | 안영진.로사(안스테파노모친) 건강회복 | 고원석.바오로 고벨라뎃타 |
| 생 | 최골고니아, 김프란치스카 영육건강 | 아빌라데레사회 | | | |

간
장
종
지

◎꿈◎

어느 날 겨울비 같이 와서 나를 적셔 주셨다.
그렇게 당신 안에서 당신을 먹으며 자랐다.
자주 답답해했고 때때로 유혹에 흔들렸다.
그러나 그 황홀. 완성된 삶을 나 꿈꾸며 산다.

마종기.노렌조 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 | | | |
|---|---|---|---|
|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
| <p>Print N Signs</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p> |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 | |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권주일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며
깨어 준비하는 은혜로운 대림절 되세요.

- 1.주일 야외미사
최근 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교구방역지침에 따라 당분간 10시 교중미사가 야외미사로 집전됩니다. 미사후 자발적으로 정리정돈에 참여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평일 온라인미사 (문의:각구역장)
일시:오후6시(동영상),오후7시30분(Zoom 미사)
금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미사 없습니다.
집전:김원현.베드로 본당주임 신부님
- 3.St.Mary's 천주교묘소 한국섹션 이용안내
묘소완공:21년1월(예정)/안장:21년2월부터가능
선종하신 가족을 모실 교우분은 안장희망일자를 택일하셔서 연령회장께 알려주시면 신부님과 상의하여 최종일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문의:고원석.바로로 연령회장(916-813-4440)
- 4.주보광고(2021년) 신청안내
금액:\$150/1년 신청:사무실
- 5.매일미사(2021년) 연간구독 신청안내
금액:\$50/1년 신청:사무실
- 6.정혜도서관 개관 및 대출도서 반납안내
개관일시:12월13일(일)교중미사후
도서반납:정혜도서관 또는 사무실
- 7.신자주소록(2021년판) 정비중
최근 성당에 새로 오신 분은 주소록 인쇄에 빠지지 않도록 사무실에 오셔서 등록 바랍니다.
- 8.감사합니다
감사헌금:박수옥.김도술(\$1,000), 김규철(\$100)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교중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주소서

| | | | | |
|------|---------------|----------------|----------------|----------------------------|
| 전례봉사 | 대림제2주일(12월6일) | 대림제3주일(12월13일) | 대림제4주일(12월20일) | 예수.마리아.요셉 성가정축일(12월27일) |
| 복사 | 송돈희.요셉 | 김규철.레오 | 최진호.다니엘 | 최준우.루카 |
| 헌금위원 | 레지오 단원 | 레지오단원 | 레지오단원 | 레지오단원 |